

201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B형 정답

1	⑤	2	①	3	②	4	④	5	②
6	②	7	④	8	①	9	⑤	10	⑤
11	②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⑤	18	③	19	⑤	20	①
21	①	22	④	23	①	24	③	25	④
26	③	27	④	28	③	29	⑤	30	②
31	④	32	④	33	①	34	⑤	35	③
36	①	37	⑤	38	③	39	②	40	③
41	③	42	②	43	③	44	③	45	①

해설

1. [출제의도]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사회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토론 논제를 제시하고, 표준 토론 방식과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어서 토론자 및 관정단에게 토론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에 필요한 핵심 용어를 정의하는 발화 내용은 없다.

2. [출제의도] 토론자의 발화 방식을 이해한다.

'반대 2' 토론자는 찬성 측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으로써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관련 설문 조사 중 그러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있음을 밝혀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3. [출제의도] 토론에서 최종 변론의 전략을 활용한다.

반대 측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교복과 애교심의 관련성을 언급한 내용은 입론과 반론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②는 최종 변론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⑤ 제시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반대 1에서 교복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찬성 2에서 반박을 펼쳤으므로, 일종의 쟁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론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유리한 근거를 들어 다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출제의도] 화법의 요소나 기능을 이해한다.

A형 4번 해설 참고.

5. [출제의도] 담화 참여자가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파악한다.

A형 5번 해설 참고.

6.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적절하게 요약한다.

요약하기의 다양한 전략을 실제 글에 적용하여 주어진 글을 요약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학생은 원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즉 미세조류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임, 식량 자원이 아니라는 장점, 석유보다 비싸다는 문제점 등을 선별하고, 유사한 내용(미세조류의 성장 및 연소 시의 환경 친화적 특성)을 압축하고, 원문의 문장을 자기 말로 바꿔 쓰는 등의 요약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요약문에 원문의 흐름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②는 학생이 활용한 전략으로 볼 수 없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적절하게 세운다.

학생이 쓰려는 글의 목적이 유기되는 애완동물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면, ④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문제는 <보기 1>의 구상에 언급된 적이 없으며, 본론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8. [출제의도] 자료의 특성에 맞게 글쓰기에 활용한다.

<보기 2>에 제시된 유기 동물 발생 및 처리 내역에 관한 통계는 특정 시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지만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기 어렵다. <보기 1>에서 유기 애완동물이 '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 점을 고려하여 유기 동물의 '증가'에 초점을 두어 논의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9. [출제의도] 적절한 글쓰기 전략을 구사한다.

A형 9번 해설 참고.

10.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을 바르게 수정한다.

A형 10번 해설 참고.

11. [출제의도] 된소리되기 규정을 이해한다.

② '갈등'은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26항 '한 자어에서 'ㄱ'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조항에 따라 [갈똥]으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덜개'는 제23항에 따라 [덜개]로 발음하고, ③ '낫설다'는 제23항에 따라 [낫설다]로 발음하며, ④ '머금다'는 제24항에 해당되므로 [머금따]로 발음한다. ⑤ '남기다'는 제24항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남기다]로 발음한다.

12.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보기>는 용언의 어미 '-아/-어'가 결정되는 환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다'로, 활용할 때 어미 '-아'가 '-어'로 바뀌어 '하여'가 된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18항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오답풀이] ② 되어, ③ 보아, ④ 꺾어, ⑤ 베어 등으로 활용한다.

13. [출제의도]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파악한다.

㉠은 원래 문장에서 주어인 '문제는'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모르고 있다'의 주어가 '누구도'이므로 '문제는'은 서술어 '것이다'가 필요하다. ㉡의 '구에받다'는 조사 '에'와 함께 쓰이므로 '시간을'을 '시간에'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의 서술어인 '차지한다'는 타동사이므로 '자리 중'을 '자리로'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로 고쳐야 한다. ㉣ 부사 '비록'은 '-르지만'이나 '-지만'과 같은 어미가 붙는 용언과 함께 쓰이므로 '고단하면서'를 '고단하지만'으로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14.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탐구한다.

A형 14번 해설 참고.

15. [출제의도] 합성어를 형성하는 각 어근의 의미 변화를 파악한다.

A형 15번 해설 참고.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한다.

⑤의 '저비'는 현대 국어의 '제비'에 해당하는 단어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형태가 변하였지만 의미는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물근다'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② '모술'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인 받침음과 모음인 아래아를 사용하였다. ③ '아나'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이어적기)을 적용하였다. ④ '긴너'와 같이 글자 왼쪽에 받침을 찍어 성조를 표시한 것 역시 중세 국어의 특징이다.

[17~18] (예술) 김승일, 「클래식 음악 알아듣기」

음악에서의 긴장과 이완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선율의 상승과 하강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듬의 변화를 활용한 것이다.

1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이 글의 핵심은 음악에서의 긴장과 이완이다. 그리고 이 긴장과 이완을 구현하는 방식을 선율과 리듬의 활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긴장과 이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는 긴장과 이완을 구현하는 음악적 원리의 일부만 나오지만 음악적 원리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③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한 글이 아니다. ④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음악적 요소로서 긴장과 이완을 설명하고 있지만 선율과 리듬의 조화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내용을 파악하여 다른 작품에 적용한다.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구현하는 방식을 동요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선율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되는데 ③의 경우 선율이 하강하고 있으므로 노래를 부를 때 긴장이 이완된다.

[오답풀이] ① 선율의 상승은 음악적 긴장을 가져온다. ② 제일 높은 음에서 긴장의 느낌이 가장 크다. ④ 음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말은 앞 음과의 높이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 긴장의 느낌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⑤ 선율이 하강할 때는 이완의 느낌을 갖게 된다.

[19~21] (인문) 김선희, 「철학이 나를 위로한다」

이 글은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시계로 측정된 물리적인 시간과 달리 의식의 시간(지속)은 분절되지 않는다. 필자는 객관적인 시간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시간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9.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물리적인 시간과 의식의 시간을 대조시켜 설명했지만 변화 과정을 고찰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의식의 시간인 '지속'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② 물리적인 시간과 의식의 시간(지속)을 대조시켜 화제인 시간에 접근하고 있다. ③ '지속'을 흘러가는 강물에 빗대어 설명했다. ④ 두 가지 '10시간', 길을 가다 만난 '친구'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20.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이해한다.

<보기>의 ㉠은 시간을 끊어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는 시간을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문에서 ㉠에 대응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 동일한 시간이며, ㉡에 대응하는 것은 의식의 시간, 진정한 시간, 지속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둘 다 ㉠과 대응한다. ③ 둘 다 ㉠과 대응한다. ④ 둘 다 ㉡와 대응한다. ⑤ '진정한 시간'은 ㉡와 '동일한 시간'은 ㉠과 대응한다.

21. [출제의도] 필자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한다.

[A]는 객관적인 시간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시간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보기>의 ㄱ은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간의 주인으로, ㄴ은 자신과 삶의 속도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이다. ㄱ과 ㄴ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시간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A]의 관점과 유사하다.

[오답풀이] ㄷ의 사회적 기준이 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ㄹ처럼 시간을 분초 단위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 역시 시간을 물리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2~24] (사회) 문영미, 「디퍼런트」

이 글은 기업이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확장과 역포지셔닝 브랜드라는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심리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되어 사용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사례를 글의 전반적인 흐름에 맞게 이해한다.

㉔에서 ㉔까지는 경쟁 기업들이 A 기업의 등산복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등산복을 만드는 바람에 A 기업 등산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때는 A 기업 등산복에 있는 기능들은 경쟁 기업들도 다 갖추어 기능면에서 차별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A 기업 등산복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A 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A 기업 등산복과 경쟁 기업 등산복이 기능면에서 더 차별화되었을 것이라는 ㉔는 잘못된 설명이다.

23.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역포지셔닝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다른 경쟁 기업과 차별화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대신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㉑이 '역포지셔닝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해당한다.

24. [출제의도] 문장이 지닌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네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제품 확장'이나 '역포지셔닝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경쟁 기업이 그 전략을 곧바로 구사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기능으로 차별화되지 못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어 특정 어느 제품에 만족도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㉓이 답이다.

[25~28] (과학) 박창업, 「지구 내부를 들여다본다」

25. [출제의도] 읽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A형 25번 해설 참고.

26.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확인한다.

A형 26번 해설 참고.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한다.

A형 27번 해설 참고.

28.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어휘를 파악한다.

A형 28번 해설 참고.

[29~30] (독서) 류성룡, 「여러 아이들에게 보낸[奇蹟兒]

이 글은 조선시대의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류성룡이 자식들에게 독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편지글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문을 수양하기보다는 시험에 유리한 글만 연습하여 과거를 치르는 당대 젊은이들의 세태

를 비판하고, 성현의 글이 담긴 책, 그 중에서도 사서를 반드시 반복해서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글쓴이의 독서 태도를 파악한다.

'나'가 젊은 시절 『맹자』를 20번이나 반복하여 읽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더니 그 책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가는 곳'을 발견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글쓴이는 글을 외우는 행동이 독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독서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파악한다.

제시문에는 선인들의 독서 문화가 일부 드러난다. 이 시기 대부분의 독서는 학문의 성취와 인격 수양을 위하여 유교적 경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보기>에서는 환경 동아리라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서 행위에 참여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공동체적 읽기를 수행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읽기의 모습은 제시문에 드러난 독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31~33] (현대시)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김중길, 「저녁해」

(가)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 시는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화자가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써 내려간 작품이다. 화자는 슬픔과 회한에 빠져 지냈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운명의 힘을 깨닫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생의 의욕을 갖게 된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어두운 현실 아래 방황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그 극복 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나) 김중길, 「저녁해」

이 시는 늦가을 오후를 배경으로 기차를 타고 가던 화자가 차창 밖 황금빛 풍경에 몰입하며 빠져드는 모습이 잘 형상화된 시이다. 특히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가을 풍경을 잘 익은 사과덩이로 표현하고, 그 속의 화자의 모습을 마치 사과덩이 속에 '눈먼 벌레'가 기어가는 것으로 절묘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겨울 저녁이라는 배경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와 연결되며, (나)는 늦가을 오후의 배경이 아름답고 황홀한 분위기와 연결된다. 따라서 두 시의 공통점은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㉑ (나)에는 풍경에 감탄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㉒ (나)에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㉓ (가) '딜옹배기, 복덕불, 나긋손, 쉼' 등에서 토속적 시어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토속적 시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시의 흐름을 이해한다.

이 시에서 방은 단순한 소재나 배경을 넘어서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㉔ [D]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운명론적 인식이 '방'에서 형성되는 것은 적절하지만,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3. [출제의도] 시에 대해 적절히 감상한다.

저녁해가 퍼지는 풍경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화자가 타고 있는 '급행열차'의 속도감으로 형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㉒ '골든 텔리셔스'는 시각적, 미각적인 감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이다. ㉓ 기차를 타고 가며 창 밖으로 보이는 '들녘', '잡목숲', '인가' 등의 대상이 모두 저녁해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보이는 것이다.

[34~36] (고전 소설) 작가 미상, 「홍계월전」

이 작품은 작가를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로, 주인공 '홍계월'이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높은 벼슬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엄하게 훈계하고 있으며 주변 인물들이 이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주인공에 대한 주변 인물의 태도는 남존여비 사고가 팽배해 있던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이 작품에는 조선 후기의 변화된 의식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 작품에는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가 거의 없다.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가 직접 드러내거나 인물의 태도와 행동 묘사, 그리고 대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㉑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㉒ 평국과 보국이 대결하는 부분에서, 평국이 락 도사에게 배운 술법으로 보국을 제압하고 있다. ㉓ '천자가 보국의 소식을 몰라 염려하시거늘', '보국이 의심하여 한편으로 진을 치며 생각하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사건이 천자, 평국, 보국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35. [출제의도] 사건의 서사 구조를 이해한다.

보국이 평국을 적장으로 오인하자 천자는 '보국이 원수를 보고 적장인가 하여 의심하는 듯하니 원수는 적장인 체하고 중군을 속여 오늘 재주를 시험하여 짐을 구경시키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국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천자에게 보국과의 대결을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소설의 내용을 통해 천자의 제안을 받고 평국이 보국을 먼저 공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㉑ 천자는 오, 초 두 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보국의 장계를 받고 보국의 진으로 이동하였다. ㉒ 보국이 평국을 적장으로 오인하자 천자가 평국에게 보국과의 대결을 명하였다. ㉔ 보국이 평국과의 대결 후에 부끄러워하자 천자가 위로하였다. ㉓ 천자는 보국을 위로하면서 보국이 평국과 대결을 벌이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외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보국은 평국과의 대결에서 위협에 처하자 '평국은 어데 가서 보국이 죽는 줄을 모르노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보국은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국이 끝까지 평국의 능력을 무시했다거나, 이를 통해 가부장적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7~38] (가) 정철, 「속미인곡」 / (나) 황진이, 「시조」

3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A형 38번 해설 참고.

38.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한다.

A형 39번 해설 참고.

[39~42] (현대소설) 염상섭, 「만세전」

이 소설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일제 강점기 무단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식민지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동경 유학생인 한 인물이 별다른 관심이 없던 민족의 현실 문제에 관심

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의 각성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지문은 '나'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은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공장이나 광산에 팔아넘긴다는 것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란다. '나'는 배 안 목욕탕의 일본인들의 그러한 언행을 통해, 한편으로는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며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소설 속 공간의 의미와 인물의 역할 및 사건을 이해한다.

일본인이 조선의 젊은 애들이나 계집애들이 조선 땅에서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배불리 먹기 커녕 보릿고개엔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기 쉬우니, 차라리 '변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요량으로 현해탄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변화한 동경, 대판'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고통받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소설 속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헌병', '노동자 모집원'은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지,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시켰다고 볼 수 없다.

42.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속담을 활용한다.

㉠에는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팔기가 매우 쉽다는 의미의 구절이 들어가야 하고, ㉡에는 조선인들에게 일본 공사장 일이 힘들지 않고 쉽다는 의미의 구절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이다.

[43~45] (희곡) 유치진, 「소」

43.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극중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A형 43번 해설 참고.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A형 44번 해설 참고.

45. [출제의도] 작품을 통해 희곡의 극적 특징을 파악한다.

A형 45번 해설 참고.